



조경수목산책(Ⅱ X VIII)

- 팽 나무 -



임 경 빈
농학박사

〈저번호에 이어〉

7. 팽나무와 푸조나무

느릅나무과에는 느릅나무속,

시무나무속, 느티나무속, 팽나무속, 푸조나무속이 있는데 이중 푸조나무의 열매는 팽나무에 크게 닮아 있다. 잎도 서로 닮아 있으나 푸조나무잎의 측맥은 잎의 가장자리의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팽나무잎의 그것과 다르다. 푸조나무는 남쪽 따뜻한 곳에 나고 거대한 몸집으로 자란다.

푸조나무 하면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35호가 먼저 생각에 떠오른다. 이 나무는 벼농사 들판 길가에 서 있다. 지형으로 보아 토심이 깊고 충분한 토양습기를 가진 곳이다. 수령은 3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고



강진대구의 푸조나무와 민속신앙. 1998. 5. 2(사진위), 강진대구의 푸조나무. 1998. 5. 2(사진아래)

16m, 가슴높이줄기둘레 82m에 이르며 수관은 흡사 큰 우산을 펴놓은 듯하고 수관직경은 27m쯤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처럼 곁가지가 멀리 퍼져있고 따라서 가지의 끝이 거의 지표면에 닿고 있다. 누구나 처음 이 나무를 보는 순간 그 크기에 놀라고 정돈된 수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어 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 동서남북의 햇볕과 공간을 완벽하게 이용하겠다는 가지차례(枝序)의 설계는 한 톨 세포 안에 담겨 있는 유전자원이 해내고 있는 위력이라고 느껴진다.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는 세포내용물이 이만한 거구를 지배조종한다는 것은 오히려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의 불가능이 없는 능력으로 돌리고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푸조나무를 세 번째



▲장흥용산면의 푸조나무 천연기념물 268호. 1998. 4. 22

로 보기 위해서 1998년 5월 24일(일) 아침 강진에 있는 초당림(草堂林) 식당에서 호화스러운 아침식사를 끝내고 차를 몰아서 대구(大口)의 푸조나무로 갔었다. 날씨가 흐리고 짙은 안개가 끼어 사진의 효과를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촬영에 열중했다. 선

명한 사진을 얻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기상상태가 가는 빗방울마저 동반하고 있다. 이 나무는 전에는 동제를 올리는 신목(神木)의 구실을 하기도 했고 칠월칠석 때면 동민이 이 나무 아래에 모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무의 관리문제도 이야기하곤 했다. 이 나무에 손



▲부산 수영동 푸조나무. 1991. 12. 5.



▲부안 현경면의 팽나무 잎

을 대어 가지나 잎을 따기만 해도 큰 재앙을 받게 된다는 믿음 때문에 이 나무의 보호는 열려를 벗어나고 있다. 전번에도 이 푸조나무를 찾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다음 번에는 맑은 날을 골라보아야겠다. 이 푸조나무는 우리나라 나무의 큰 자랑거리의 하나이다.

8. 팽나무 팽(彭)자 이야기

책에 보면 팽나무는 지방명으로 달주나무, 평나무(어청도), 폭나무(남해, 전남), 매태나무(전남) 등으로 보고나무 등이 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왜 팽나무로 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 나무에 대한 한자명은 대단히 많고 우애하라(上原)는 그의 책 수목대도설(樹木大圖說)에 있어서 榎, 檟, 朴, 柞木, 加條木 등 22종의 명칭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팽자는 들지 않고 있다. 팽(彭)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글자는 아니나 중국 요임금시대에 그의 신하로 발탁되어 그 뒤 은나라에 이르기까지 700살이나 장수하면서 나라 일을 본 팽조(彭祖)의 이야기가 유명해서 이 글자가 우리 곁을 멀리 떠나지 않고 있고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팽택의 현령 비술을 지냈기 때문에 그를 팽택(彭澤)으로 말하기도 한다.

팽(彭)자를 넣어 만든 글자가 많다. 팽창율(澎脹率)이라던가 하는 때의 팽(澎)자가 그러하다. 한자사전에 보면 팽(彭)과 합쳐서 팽으로 발음하는 한자는 무려 15자에 이르고 있다. 팽만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 팽으로 발음하면 무관하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간행된 한자사전에서는 팽(彭)자를 찾아볼 수 없다. 모로하시(諸橋)저 대한화

사전(大漢和辭典)(전 12권)에도 없다. 그런데 팽나무 팽(彭)자를 우에끼 교수는 그의 저서 『조선산 수목의 종류 및 그 분포』(일본말 서적, 수원고등농림학교 특별보고 제 1호, 1940년 간행)에 나타나고 있다. 그는 木과 柞木 두 가지 한자명을 기록하고 있다. 柞은 바둑판 평 또는 장기관 평으로 읽는다. 다음으로 정태현 박사는 그의 저서 『조선삼림식물도설』(일본말로 되어 있다. 1943년 간행)에 있어서 팽나무는 지방명으로 매태나무(합남), 평나무, 폭나무 등으로 말하고 한자명으로는 檟, 木, 榎木, 朴樹, 檟樹 등이 있다고 했다. 정태현 박사는 곳곳에 (彭)자를 쓰고 있고 1956년에 나온 그의 저서 한국식물도감에도 (彭)자를 많이 쓰고 있다.

이상을 종합고찰 한다면 (彭)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쓰고 있는 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무의 이름이 팽나무이고 보면 팽으로도 발음할 적격한 한자는 (檟)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하는데 누구나도 저항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참 멋진 착상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무의 한자명은 주어져야 한다고 동의하게 된다. 이상이 이곳 필자의 유추(類推)이며 결론이다.

평나무라는 지방명에는 柞자를 발성상(發聲上)의 이유로서 가져다 붙인 것으로 짐작한다.

팽나무가 바둑판재로 승상이 되어서 枰것으로 하는 것인지는 더 알아보아야 한다. 푸조나무는 푸조나무 량(椽)자로 쓴다. 일본에서도 이 글자를 쓰고 『무꾸노끼』로 읽으며 푸조나무를 뜻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椽이 푸조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를 뜻함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있어서도 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때의 량(椽)의 京자는 涼(서늘할 량)자에서 얻어온 것

으로 푸조나무가 피음수로 좋고 그 그늘이 시원해서 만들어진 글자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椽 자는 원래는 푸조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관용(慣用)되어 오는 글자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팽나무를 『에노끼』라 부르고 榎 자를 적용하고 있다. 여름이 되면 좋은 그늘을 제공한다고 해서 木과 夏의 합자(合字)로 榎를 고안해

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 나무의 가지는 농기구의 자루(柄, 일본말로는 '에'로 발음)로 잘 이용되는 까닭에 에노끼(柄木)에서 온 것이라는 말도 있다. 어느 한 가지나 정확한 것은 못된다.

9. 황목근 이야기

성은 황씨요 성명은 목근(木根)이라는 팽나무가 경북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琴南里)에 한 그루 서 있다. 수령은 약 600년생으로 추정되고 천연기념물 400호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팽나무이다. 이 나무를 보고자 간 날자가 1998년 7월 31일이었다. 연신 주행거리 미터가 올라가는 택시를 타고 이 나무 가까이 접근했을 때 택시기사는 미터기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말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미터기를 그대로 돌리면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 택시요금을 내야할 것이므로 이쯤하고 요금은 더 받지 않겠다는 호의에 찬 설명이었다. 이상한 친절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만일 그대로 미터기를 계속 돌렸더라면 틀림없이 그 많은 승차료는 외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골 택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금이 빠르게 오른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었다. 돌아오는 거리의 요금은 받지 않아도 장사가 된다는 기사의 설명에서 나는 오히려 그 배려에



▲윤선도 선생 유적지의 팽나무. 보길도. 1986.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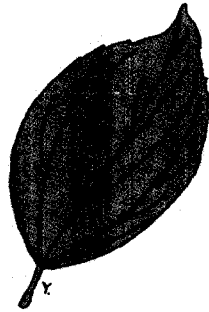


▲황목근. 경북 예천 용궁. 1998. 7.

감사할 뿐이었다.

황목근이라는 팽나무는 널찍한 논밭의 길가에 서 있는데 넉넉한 생활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듯했다. 수고 15m, 가슴높이 줄기둘레 3.2m의 노거수이다. 땅에서 약 2m 높이에서 줄기가 4갈래로 크게 갈라지고 줄기 아래 수피는 회흑색이었다. 수관이 사방으로 고루 퍼져서 좋은 녹음수의 구실을 하고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간단한 걸상이 몇 개 놓여있었다. 나무



▲황목근의 잎

그늘 아래 돌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 팽나무의 어린 나무를 심어 놓고 있었는데 후계자로 만들 생각인가 해 보았다. 그 옆에 비석이 있고 비면에 『神靈干臨廣濟草木』이라고 있었다. 『신령이 계셔서 온갖 만물 생명들을 구제해 주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면에는 『里社之神壇』이라고 음각되어 서낭당나무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화강암으로 된 상석도 있는데 제사지낼 때 음식 등 제수를 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닌게 아니라 해마다 정월대보름날 자정을 기하여 당산제를 동민들은 올리고 있다. 이 나무의 성을 황으로 한 것은 꽃색, 열매색 때문이라고 하고 목근(木根)이란 이름은 건강한 뿌리를 깊게 내려 오래오래 살라는 뜻에서 붙인 거라고 한다.

고유번호	4790038021-10228-0080	토지	대장	지번번호	4	발급번호	0810-0048-01
소재지	경북 예천 용궁면 용궁리			지번호	1-1	면적	33
지번	338			비고		작성지	89년 11월
소재지 표시		소재지 표시					
지목	면적 (㎡)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021	2822.9	071988년 8월28일	021목근	021목근	021목근	021목근	021목근
		이 파 에 배	090년 7월10일	090년 7월10일	090년 7월10일	090년 7월10일	090년 7월10일
			091목근	091목근	091목근	091목근	091목근
			이 파 에 배	이 파 에 배	이 파 에 배	이 파 에 배	이 파 에 배
수수로 무름							
공공수정년월일 1997년 11월 15일							
토지대장 지하여 작성됨 1997년 11월 15일 예천군							

▲황목근의 토지대장

황목근 아래에서 해마다 정월보름에는 자정에 당제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때 올리는 축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里社之神 이사지신
 神靈在上 신령재상
 福祿是荷 복록시하
 明佑律多 명우율다
 黎情久賴 여정구뢰
 擇斯吉日 택사길일
 行此祀事 행차사사
 畧需菲薄 약수비박
 微誠告禱 미성고도
 昭示勿秘 소시물비
 所願惟格 소원유격
 福祿遷之 복록천지
 災殃雪消 재양설소
 萬事順迪 만사순적
 四境淸淨 사경청정
 田野風登 전야풍등
 邑村咸寧 읍촌함영
 人心和樂 인심화락
 官厄消滅 관액소멸
 家有倉粟 가유창름
 民無疾病 민무질병
 福有奠靈 복유전령
 庶遂所望 서수소망
 尙 饗 상향

곳에 따른 이러한 축문은 그 내용이 비슷하겠지만 이곳 축문에는 별다른 대목이 한 곳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행패가 제발 없어지도록 신령께서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다. 아마 이 축문은 조선조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한다. 당시의 관리들의 부패가 여간 심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백성의

힘으로서는 그 부조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한번 사용한 제기(그릇)는 두 번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마을의 신이여
 신령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그 복록을 받으며
 밝으신 도움이 많도다
 백성들의 정이 오래 의지하였네
 좋은 날을 골라서
 이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수는 변변치 못하옵고
 미약한 성의로 기도하오니
 밝게 보이시며 감추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복록을 주시며
 재앙을 눈 녹이듯 하시고
 만사가 잘되게 하시고
 모두가 깨끗하고
 들에는 풍년이 들고
 마을은 모두 평안하고
 인심이 화목하며
 공무원의 행패를 없게 하시고
 집집마다 공간이 차고
 백성들에 병이 없게 하소서
 신령에게 복이 있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차린 제물을 흠향(歆饗)하소서

것도 이 마을 등계의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0여년 전부터 마을사람들의 성의껏 모은 성미(誠米)를 밀천으로 1914년 2월에 임야 4399평을 1949년에는 논 827평을 구입하는 등 자산증식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의 자산은 임야 9,400㎡, 답 2,832㎡ 등 12,23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

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무로 되었으며 150만원의 은행저축도 가지고 있다. 해마다 8천원에서 1만원에 상당하는 종합토지세도 납부하고 있다. 황목근의 토지대장을 보면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에 해당)가 3750-00735로 되어 있다. 토지대장상의 토지소유자의 이름이 황목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황목근신(黃木根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나무를 인간으로 본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인지 또는 이 나무가 동신목(洞神木)이므로 신의 위격을 주고자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황목근 앞으로 동네 재산을 등기이전 해 준 것은 1939년의 일이라고 한다. 해마다 소유답에서 쌀 5가마니를 받고 있는데 이 나무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에는 황목근 말고도 석송령(石松靈)이란 이름을 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흐뭇한 사연들이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척 즐겁게 해준다. 황목근의 장수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황목근을 중심으로 이곳 금남평야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수리시설도 좋아 항상 풍년이 들거라는 인상을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